

을유문화사 대표 도서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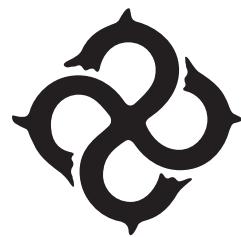
1945 — 2025



을유文化社

광복 80년

그리고 을유 80년



乙酉文化社



머리말

광복과 함께 1945년 12월 1일 창립된 을유문화사가 올해로 8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을유문화사는 한국 현대사와 궤를 같이하며 한국 출판의 전통과 진정성을 지켜 오는 가운데 7,000여 종 이상의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을유문화사 대표 도서 80』은 지난 80년간의 출판 역사를 되돌아보고 21세기의 다변화하는 출판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946년 잊혔던 한글의 원상회복과 언어의 틀을 일깨우기 위해 펴낸 한글 글씨 교본 『가정 글씨 체첩』을 시작으로, 민족 문화의 궁지를 드높여 한국 출판문화의 금자탑으로 일컬어진 『큰사전』, 일제에 의해 단절된 우리 정신 문화의 역사를 이은 『한국사』, 지식의 대중화를 위해 동서양을 통틀어 양서만을 엄선하여 간행한 〈을유문고〉, 불모지나 다름없던 세계 문학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을유세계문학전집〉, 예술의 대중화와 대중문화의 예술적 승화에 헌신한 장인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조명한 〈현대 예술의 거장〉, 동시대 세계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암실문고〉에 이르기까지 을유문화사는 우리 사회에 유용한 교양서를 출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80주년을 기념하며 발간하는 『을유문화사 대표 도서 80』은 편집부 자체 논의를 거쳐 엄정하게 선정한 것으로, 지난 80년간의 출판 역사를 회고하고 나아가 우리 시대의 사회와 문화 발전에 최고의 가치를 둔 출판사로서 변함없이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을유문화사가 있기까지 그 밀거름이 되어 주신 독자 및 저역자를 비롯한 을유문화사를 지성의 벗으로 삼아 오신 소중한 분들에게 아무쪼록 본 책자가 의미 있는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을유문화사 대표 도서 80

발행일

2025년 6월 15일

펴낸이 | 정무영, 정상준

펴낸곳 | (주)을유문화사

창립일 | 1945년 12월 1일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9-48

전화 | 02-733-8153

팩스 | 02-732-9154

홈페이지 | [www.eulyoo.co.kr](http://www.eulyoo.co.kr)

2025년 6월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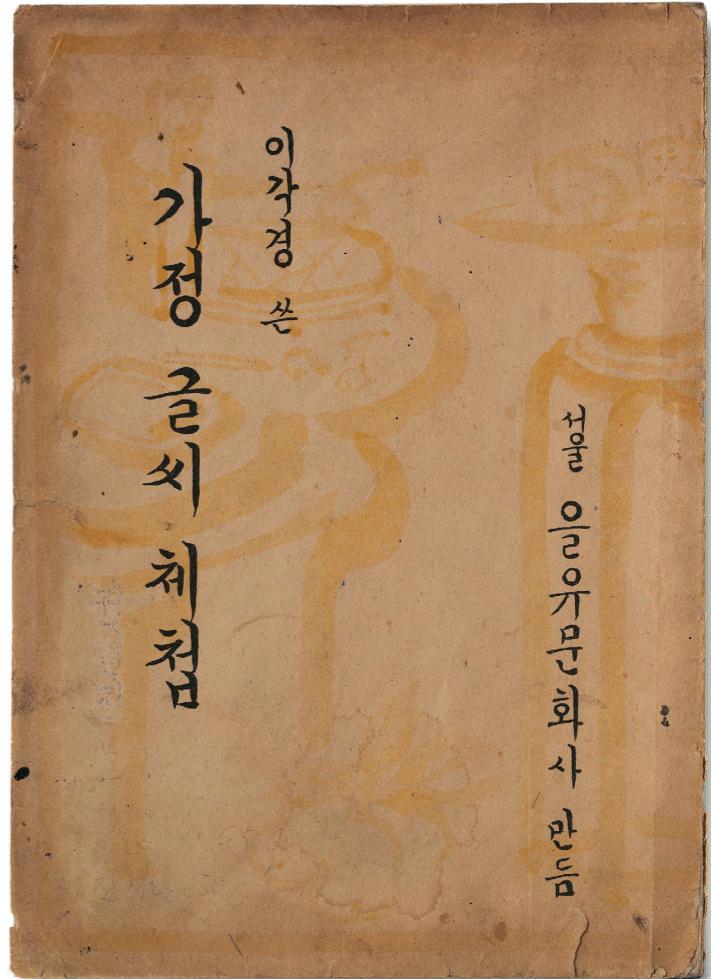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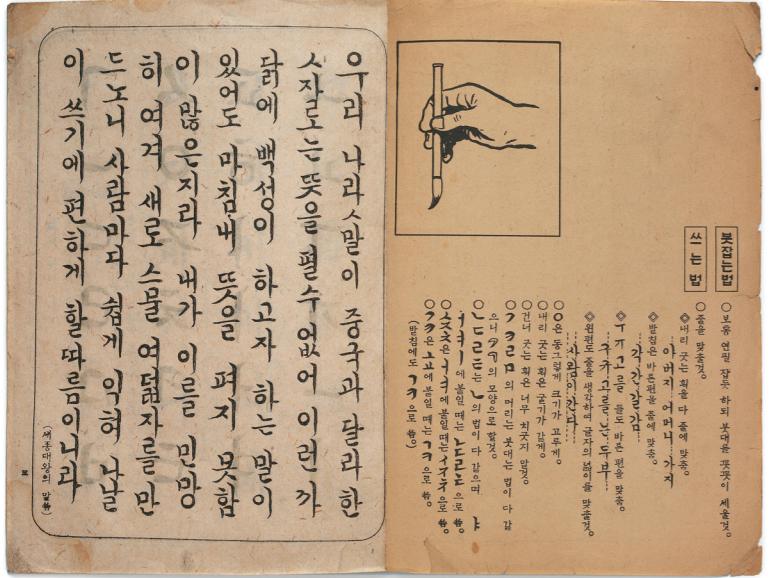
01	가정 글씨 체첩	8
02	큰사전	10
03	마의 산 (전 2권)	13
04	루쉰 소설 전집	13
05	아우스터리츠	14
06	개인적인 체험	14
07	제인 에어	15
08	전쟁과 평화 (전 3권)	15
09	지용시선 / 청록집 / 석초시집	17
10	잔등 / 사상의 월야 / 무녀도 / 삼대	18
11	사랑손님과 어머니 / 취우 / 불꽃	18
12	임꺽정	21
13	근원수필	21
14	김약국의 딸들	21
15	자살의 연구	22
16	아구아 비바	23
17	고통을 말하지 않는 법	24
18	리플리 (전 5권)	27
19	월탄 박종화의 역사소설 선집	29
20	한국역사소설문학전집	30
21	한국신작문학전집 / 현대한국신작전집 / 한국신소설전집	31
22	한국고대소설전집	32
23	세계야담사회전집	33
24	한국대표여류문학전집	34

25	북으로 간 작가선집	35	53	마이를 더다의 고전 읽기의 즐거움	63
26	해외걸작선	36	54	국화와 칼	64
27	제2의 성	38	55	김현의 그리스 로마 신화	65
28	황금가지 (전 2권)	38	56	위대한 수사학 고전들	65
29	러셀 서양철학사	39	57	현대사회학	66
30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39	58	세계정치론	66
31	소학생	40	59	빌 에반스	68
32	조선문화총서	41	60	트뤼포	68
33	대학총서	42	61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69
34	구미신서	43	62	예술과 풍경	70
35	한국사	44	63	오디오·라이프·디자인	70
36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47	64	한국 팝의 고고학 (전 4권)	71
37	공간이 만든 공간	47	65	헤어질 결심 각본	73
38	유현준의 인문건축 기행	48	66	너의 표정	73
39	글자 풍경	50	67	위대한 영화 (전 4권)	74
40	괴물들	51	68	인간과 사진	75
41	몸은 기억한다	52	69	인생, 예술	76
42	가치 있는 삶	52	70	위대한 여성 예술가들	77
43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할 때마다	53	71	중국의 과학과 문명 (전 3권)	79
44	연애편지	53	72	이기적 유전자	80
45	율유문고	55	73	확장된 표현형	82
46	징비록	56	74	포지셔닝	84
47	요재지이 (전 3권)	57	75	THE ONE PAGE PROPOSAL	84
48	여요전주	58	76	삼국지 경영학	85
49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전 5권)	60	77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85
50	위대한 패배자	62	78	사람에게서 구하라	87
51	지식인의 두 얼굴	62	79	익숙한 것과의 결별	87
52	서울과 교토의 1만년	63	80	윤광준의 생활명품 101	88

## 01 가정 글씨 체첩

이각경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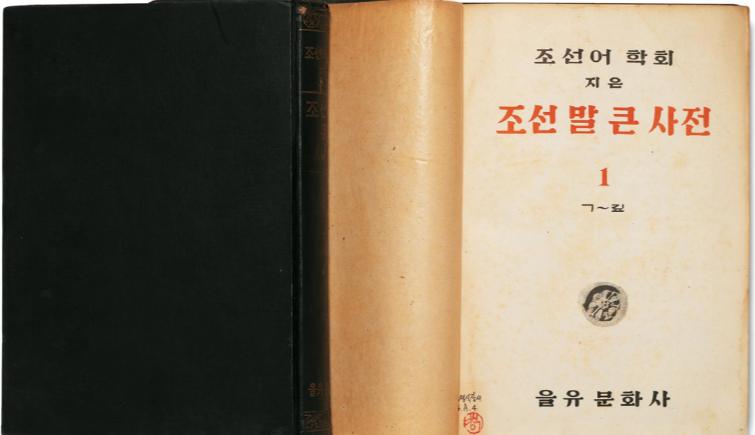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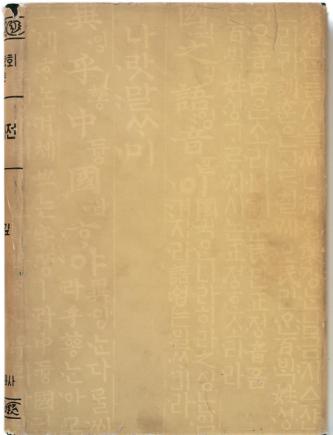
우리나라에 전래되는 고전 명문 중에서 가려 뽑은 구절들을 이각경의 궁체 글씨로 정리한 책으로, 책머리에 봇대 잡는 법과 글씨 쓰는 법을 설명했다. 해방을 맞은 지 얼마 안 되어 한글의 원상 회복과 언어 생활의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때였으므로, 이 책의 출간은 향후 올유문화사의 출판 정신을 대변하는 초석이 되었다.



## 02 큰사전

### 한글학회 지음

1947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해『조선말 큰사전』첫째권이 출간되었으며, 3권부터는 학회와 사전 명칭을 각각 한글학회와『큰사전』으로 바꾸고 1957년까지 총 6권을 간행하였다. 우리나라 출판사상 최유의 대역사로 일컬어지는 사전이다. 순우리말, 한자말, 외래어, 관용어, 사투리, 은어, 곁말을 비롯해 고유명사, 전문어, 제도어, 고어, 이두 등을 수집해 국어로 뜻풀이를 한 이 사전은 B5판 양장본 3,804쪽, 올림말 164,125개에 이르는 방대한 저작이다. 원고 작성 기간만 28년에 편집 기간은 11년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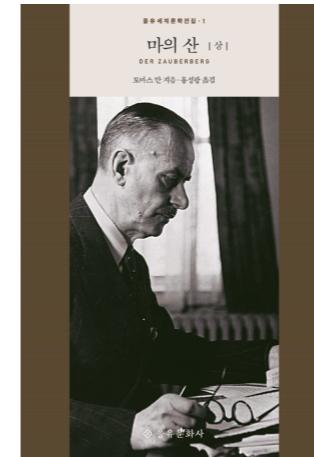




### 03 마의 산 (전 2권) 을유세계문학전집 1, 2

토마스 만 지음 | 홍성광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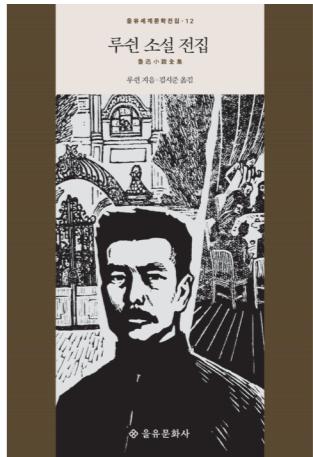
50년 만에 부활한 을유세계문학전집의 첫 권으로, 1929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토마스 만의 중장년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마의 산'은 스위스 다보스에 있는 폐결핵 요양원 베르크호프를 일컫는 말로, 함부르크 조선소에 취직이 확정된 23세의 청년 한스 카스토르프가 사촌을 문병하러 이곳을 방문했다가 7년의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유럽 문명 세계의 정신적 총체"라고 평가되는데, 이는 토마스 만 스스로 심연성(三連星)이라고 지칭한 쇼펜하우어, 니체, 바그너의 영향이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 04 루쉰 소설 전집 을유세계문학전집 12

루쉰 지음 | 김시준 옮김

중국이 낳은 세계적 대문호 루쉰의 소설을 집대성한 책으로, 루쉰이 일생 동안 발표한 소설들을 엮은 『납함』, 『방황』, 『고사신편』 등 3권에 수록된 33편을 번역한 완역본이다. 중국의 유교적인 가족 제도가 지니는 병폐와, 예절이라는 이름의 굴레가 인간을 얼마나 속박하는지를 미친 사람(狂人)을 통해 들키 보인 데뷔작 '광인일기'와 중화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만족으로 스스로를 기만하며 사는 정신 승리법과 우매성, 약점을 아큐에 집약하여 중국 국민적 성격의 전형을 풍자한 대표작 '아큐정전' 등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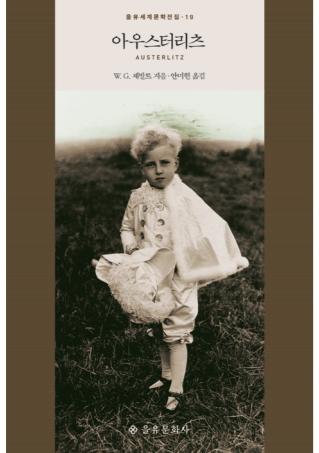


## 05 아우스터리츠

을유세계문학전집 19

W. G. 제발트 지음 | 안미현 옮김

『뉴욕 타임스』 선정 '21세기 최고의 책 100'에 오른 『아우스터리츠』는 21세기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W. G. 제발트의 유작이다. 네 살 때 혼자 영국으로 보내진 프라하 출신의 유대 소년이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과거와 부모의 흔적을 찾아 나선다는 내용으로, 100여 개의 흑백 사진 및 이미지를 통해 독자들에게 낯설고 이질적인 독서 체험을 선사한다. 독일 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주제라 할 수 있는, 그래서 터부시되거나 침묵되어 온 유대인 문제를 전후 역사상 가장 완성도 높게 다루었다고 평가받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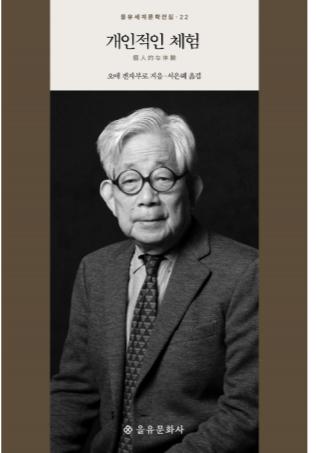


## 06 개인적인 체험

을유세계문학전집 22

오에 겐자부로 지음 | 서은혜 옮김

1994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의 대표작으로, 지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의 죽음을 원하는 청년의 영혼 편력, 절망과 일탈의 나날을 그리고 있다. 발표 당시 버드와 히미코의 성 묘사와 버드가 길에서 당한 불가해한 폭력 등이 화제가 되기도 한 이 작품은 명료한 단문이면서도 더없이 참신하고 개성적인 묘사가 돋보인다. 한 인간으로서 자신과의 절망적인 싸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행했는지를 추구하는 이 소설은 출구 없는 현실에 놓인 현대인에게 재생의 희망은 있는지 물음을 던지는 수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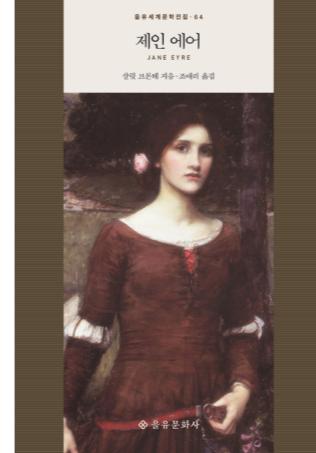


## 07 제인 에어

을유세계문학전집 64

살럿 브론테 지음 | 조애리 옮김

"최초로 개인의 의식을 그려낸 역사가"로 불리는 살럿 브론테의 대표작이다. 순응하고 인내하며 봉사하는 여성이 이상적으로 여겨지던 빅토리아 시대에, 현실적인 조건이나 개인적 자질에서 이와 동떨어진 여성인 제인의 성장을 통해 당대 여성의 삶 전반, 즉 여성의 교육, 고용, 사랑, 결혼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는 작품이다. 독립적이고 열정적이며 억압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여성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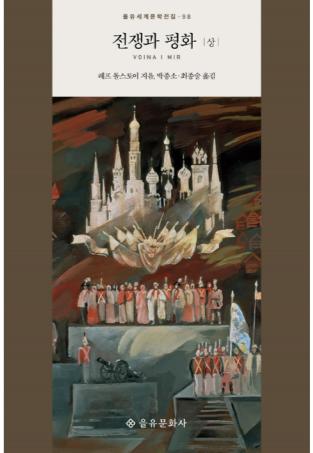


## 08 전쟁과 평화

(전 3권) 을유세계문학전집 98-100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지음 | 박종소, 최종술 옮김

도스토옙스키가 '예술의 신'이라고 칭송한 톨스토이의 대표작. 1805년부터 1820년에 이르기까지 나폴레옹 전쟁 시기의 러시아 사회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이 작품은 톨스토이가 약 7년에 걸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탄생시킨 세계 문학사의 기념비적 작품이다. 실존했던 인물과 허구적 인물까지 500여 명이 등장하는 대작으로, 하나의 완벽한 세계를 구성하는 대하 역사 소설이자 삶과 죽음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와 삶의 윤리적 문제를 제시한 윤리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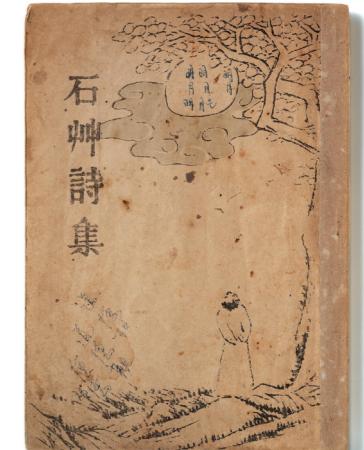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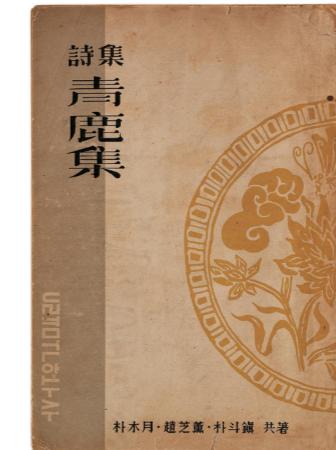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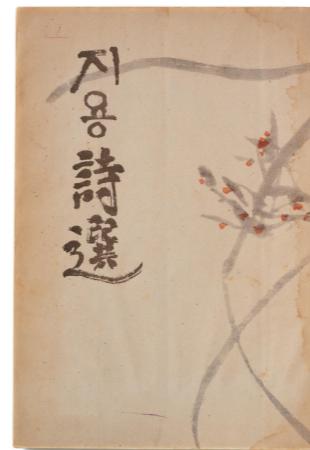




## 09 지용시선 / 청록집 / 석초시집

해방공간의 문학(시)

1946년 상반기 출판물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정지용의 『지용시선』, 박두진·박목월·조지훈 등 3인의 공동 시집 『청록집』, 그리고 신웅식의 『석초시집』이었다. 이 세 권의 시집은 해방 이후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학사에 나타난 서정시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대표하는 책들로서, 을유문화사가 문학 출판의 메카로도 이름을 떨치는 시초가 되었다. 그중 『청록집』은 한국 현대시의 큰 수학으로 꼽히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 IO 잔등 / 사상의 월야 / 무녀도 / 삼대 해방공간의 문학(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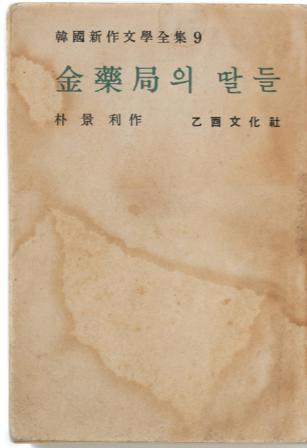
시집 출판에 이어 1946년 9월 첫 번째 소설집으로 허준의『잔등』이 출간되었으며, 11월에는 당대 최고의 작가인 상허 이태준의 장편소설『사상의 월야』가 출판되었다. 이어 김동리의『무녀도』, 염상섭의『삼대』 등 걸출한 업적들을 남겼다.



## II 사랑손님과 어머니 / 취우 / 불꽃 한국전쟁 이후의 문학

을유문화사는 한국전쟁으로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큰사전』의 간행 사업을 비롯, 조선문화총서와 을유문고 등의 출간이 중단되었으며, 다수의 필자들이 납북되거나 월북하여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문학서들이 출간되어 전란에 지친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었다. 주요섭의『사랑손님과 어머니』, 염상섭의『취우』, 선우휘의『불꽃』등이 이때 출간되었다.





## 12 임꺽정

홍명희 지음

1928년 11월 21일부터 조선일보에 연재되기 시작, 몇 차례 중단을 거듭하며 1939년 3월 11일까지 연재되었고, 이듬해인 1940년에 조선일보가 폐간되자 「조광」 10월호로 옮겨 연재를 계속했으나 결국 미완성인 채로 끝나고 말았다. 을유문화사에서는 이를 완결시키고자 저자와 교섭,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하여 전 10권으로 간행키로 하고 1948년 3월 「의형제편 1」을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그해 연말까지 여섯 권을 간행했다. 그러나 홍명희의 월북으로 완간하지 못했다. 우리 평단에서 “한국 근대 역사 소설의 최고봉이자 리얼리즘 문학의 금자탑”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이 소설은 뒷날 사계절출판사에서 재출간되었다.

## 13 근원수필

김용준 지음

1948년 출간된 『근원수필』은 화가이며 미술사가였던 근원 김용준의 수필집이다. 먹 향기 짙은 문기(文氣) 어린 필치로 골동·서화의 주변담과 일상적인 세태를 회화 작품처럼 담아낸 이 수필집은 저자의 월북으로 절판된 채 비장본으로 꾸준히 읽혀오다가 1988년 11월, 새로 발굴된 글들을 더해 『풍진 세월 예술에 살며』라는 제목으로 복간되었다.



## 14 김약국의 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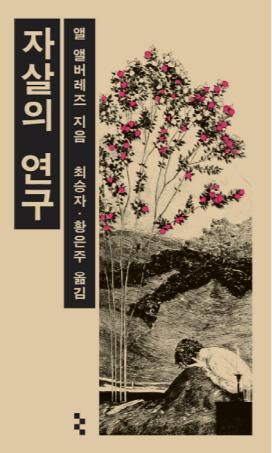
박경리 지음

1962년에 간행되기 시작한 ‘한국신작문학전집’은 등단한 지 15년 안팎인 신예작가들의 장편소설을, 그것도 전작(全作)으로 펴낸다는 기획 원칙으로 화제를 모았다. 출판계와 문단의 비상한 관심 속에서 처음 선을 보인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은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후속 작품의 판매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작가의 고향인 충무를 배경으로 유족한 한 가정이 몰락해 가는 과정을 씨줄로 삼고, 그 가정의 딸들이 겪게 되는 비극적 운명을 날줄로 삼아 쓴 이 작품은 평단으로부터 문제작으로 꼽혀 호평을 받았다.

## 15 자살의 연구 암실문고

앨 알버레즈 지음 | 최승자, 황은주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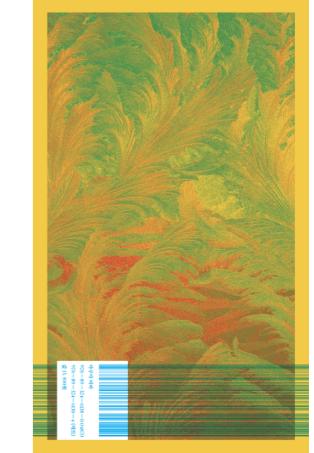
『자살의 연구』는 1982년에 최승자 시인이 번역한 판본이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 스테디셀러가 되었고, 이후 40년 가까이 판매를 이어 오며 한국 독자들에게 시대를 넘어선 명저로 자리 잡았다. 암실문고에서 새롭게 내놓은 이번 판본은 이 최승자 번역본을 바탕으로 전면 개정했으며, 여기에 기존 판본이 누락했던 내용을 추가한 번역한 국내 최초의 정식 완역판이다. 추가한 분량은 원서 기준으로 약 50쪽에 이른다.



## 16 아구아 비바 암실문고

클라리시 리스펙토르 지음 | 민승남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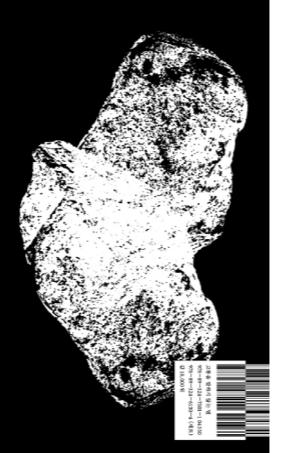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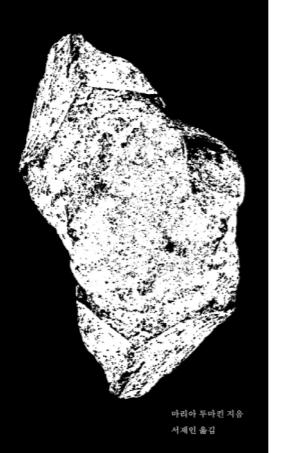
클라리시 리스펙토르가 쓴 모든 글은 이상하고 열렬한 수수께끼에 휩싸여 있지만, 그중에서도 『아구아 비바』는 가장 위태로운 자리에 놓여 있다. 이 작품은 뼈대가 없다. 전개도 결론도 없다. 리스펙토르는 언어 너머의 세계를 탐구하면서도 그 과정을 기록할 때만큼은 소설적 구조를 일부 사용했지만, 『아구아 비바』에서는 예외적으로 그 틀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 즉 이 작품 속의 리스펙토르는 가장 자유로운 리스펙토르이고, 따라서 그 뒤를 쫓는 건 완전히 불가능하다.



## I7 고통을 말하지 않는 법 암실문고

마리아 투마킨 지음 | 서제인 옮김

“이 책이 역사와 과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꼼꼼히 조사한다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 책은 우리 나름의 경건함을 찢어 버리고, 우리의 진부함을 탐구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단어, 사물, 사람, 감정 등 그 모든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도록 몰아붙인다. (...) 투마킨은 사물, 단어, 사람, 문장을 뒤집어서 그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명료하고 엄숙한 책. 계시와도 같은 책.” —『가디언』



## 18 리플리 (전 5권)

퍼트리샤 하이스미스 지음 | 김미정 옮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대표작이자 범죄소설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리플리 시리즈를 을유문화사에서 10년 만에 새로이 완역했다. 1955년부터 1991년까지 36년에 걸쳐 완성된 이 시리즈는 “현대 문학사에서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사이코패스” 캐릭터 톰 리플리를 창조하며 독자와 평단의 찬사를 받았고, 알랭 들롱 주연의 〈태양은 가득히〉와 맷 데이먼 주연의 〈리플리〉 등으로 영화화되며 화제를 모았다. 김용언 『미스테리아』 편집장의 상세한 해설을 실어 독자의 이해를 도왔고,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워크룸의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특색을 살린 박스 세트는 500세트만 한정 제작하여 소장 가치를 높였다.



“하이스미스는 불안의 시인이다.” —그레이엄 그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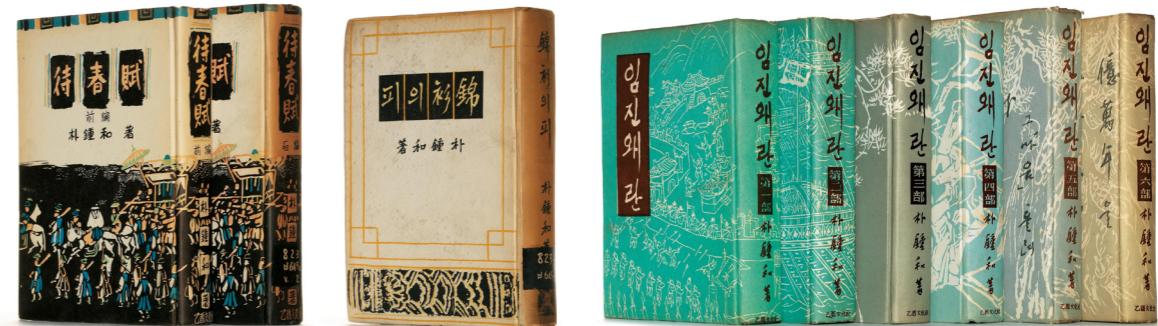
“하이스미스의 소설에 나타난 진지한 암시와 미묘한 접근법은 오늘날 발표된 어떤 소설보다 뛰어나다.” —『뉴욕 타임스』

“하이스미스는 친밀한 세계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의 분위기를 혼미할 만큼 탁월하게 자아낸다. 이런 작가는 어디에도 없다.” —『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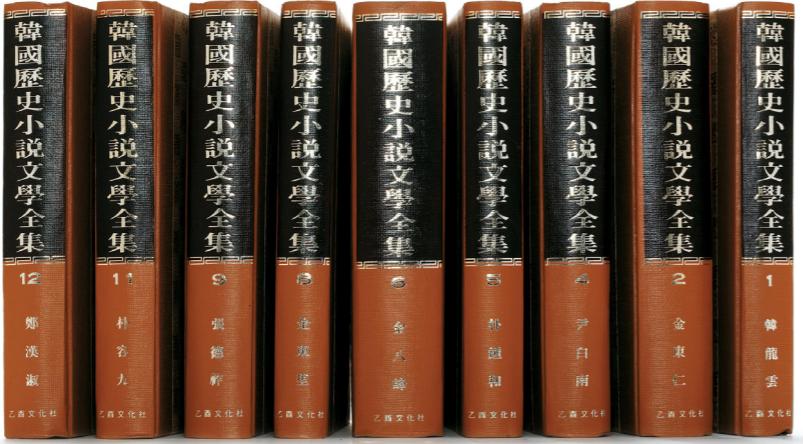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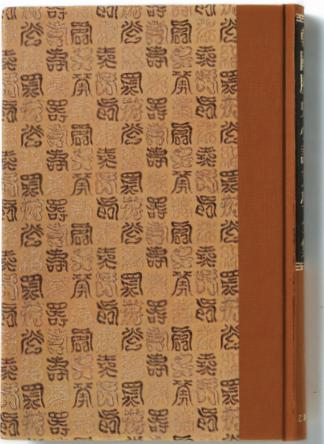
## 19 월탄 박종화의 역사소설 선집

당초 전 9권으로 기획된 월탄의 역사 소설은 그 첫째권으로『대춘부』상권이 1949년 2월에, 하권이 6월에 나왔으며, 그 사이 조선조 연산군의 비극을 다룬『금삼의 피』가 간행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960년 10월에 완간되었다. 이 가운데『임진왜란』은 4년간에 걸쳐 조선일보에 장기 연재되었던, 원고지 1만 장에 달하는 대하 역사 소설로서 정사에 입각한 월탄의 사관이 유려한 필치로 독자의 심금을 울린 명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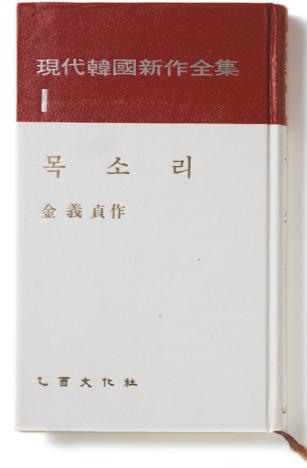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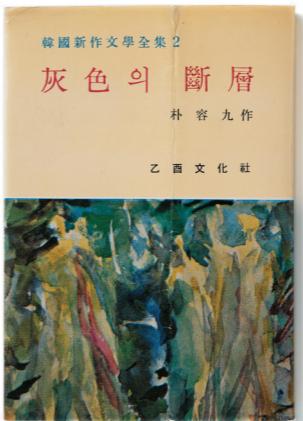
## 20 한국역사소설문학전집

신문학 이후 반세기에 걸친 역사 소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전집. 1960년 3월 이광수의 『사랑의 동명왕』과 『단종애사』를 한데 묶어 제1권으로 펴낸 후, 국내 유수의 작가들이 대거 가담하여 역사 소설을 잇따라 집필했다. 책의 성격에 걸맞게 한말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이용해 책의 품위를 높여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1960년 12월에 정한숙의 『처용량·황진이』를 끝으로 완간되었다.



## 21 한국신작문학전집 / 현대한국신작전집 / 한국신소설전집

외국 번역물에 치중해 있던 관행에서 벗어나 역량 있는 신예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제고하자는 기획으로 시작한 창작 문학 시리즈다. 1962년 한국신작문학전집으로 시작되어 그해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과 오유권의 『방앗골 혁명』을 출간했고, 1963년 5월 손소희의 『남풍』을 끝으로 완간되었다. 이어 현대한국신작전집과 한국신소설전집으로 창작 문학의 맥을 이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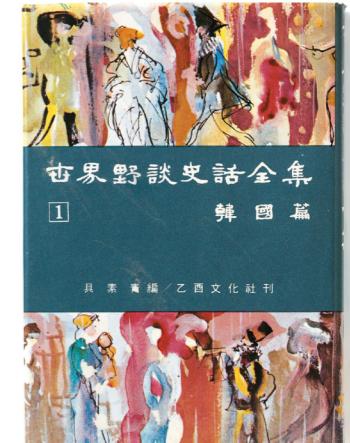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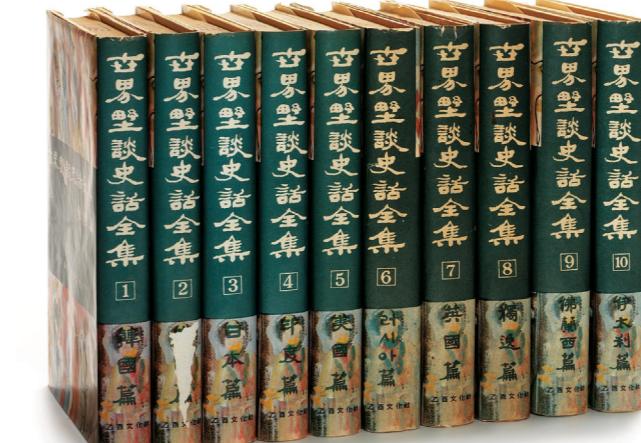
## 22 한국고대소설전집

잊혀져 가던 전래 민족 문학을 고전에 충실하면서도 평이한 문체로  
현대화한 이 전집은 우리 문학의 발자취를 더듬고 그 얼을 되새겨보기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한문으로 써어진 고소설 외에 대중들에게 널리 읽혔던 신소설  
이전의 한글 소설까지도 포함했다. 운보 김기창이 표지를 그리고 철농 이기우가  
제작을 쓴 반양장본으로, 1962년 9월에 시작되어 1965년 6월에 모두 20권으로  
완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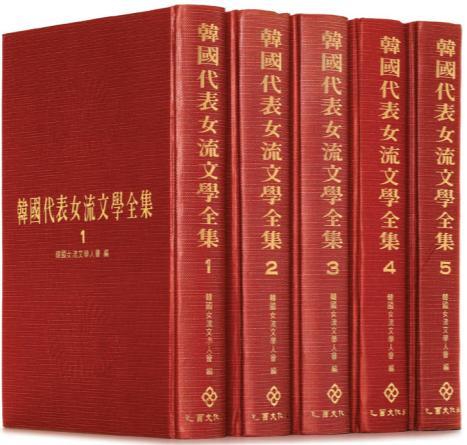
## 23 세계야담사화전집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화 위주에서 벗어나 세계 각국의 야사를 한데 모은  
전집. 「을유저어널」은 이 전집에 대해 “역사란 흔히 정사만으로 알지만 진실은 정사  
아닌 야담 사화도 역사일 수 있다… 야담 사화야말로 좀더 자세하고 정답고 흥미  
있게 (역사 속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데 특색이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1965년  
8월에 1차분 5권이 출간되었고, 그해 말 11월에 2차분 5권이 나오면서 완간되었다.



## 24 한국대표여류문학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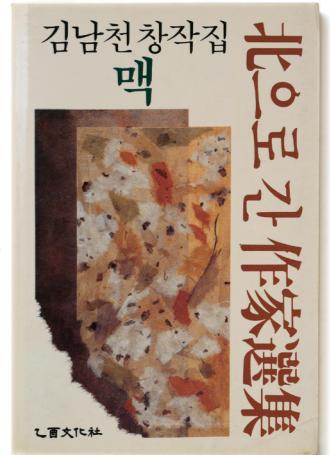
한국 문학사상 여성 문인들의 위치를 감안, 현역 여성 문인들이 직접 선정한 시, 소설, 수필, 회곡, 평론, 아동문학 등 문학 전반을 망라한 전집으로, 1977년 10월에 출간되었다. 한국여류문학인회가 99명에 달하는 현역 여성 작가들의 수작을 한데 모은 독특한 선집이다.



34

## 25 북으로 간 작가선집

1987년 10월에 납·월북 작가에 대한 해금 조치가 단행되면서 을유문화사가 창립 초기에 펴냈던 작품들을 중심으로 다시 엮은 선집. 한국전쟁으로 야기되었던 오랜 문학사적 공백을 메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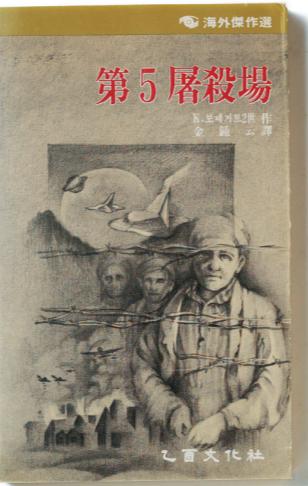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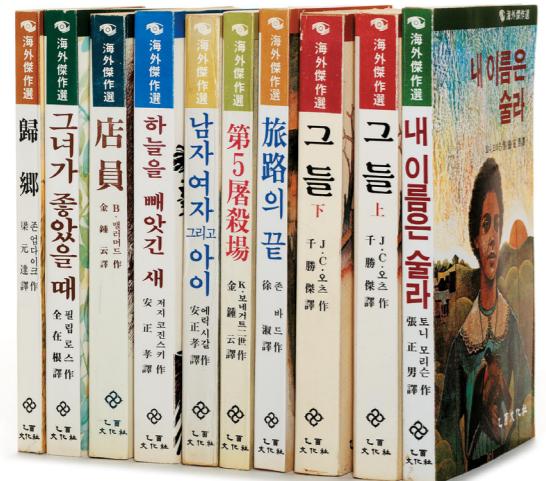


北으로 간 作家選集

35

## 26 해외걸작선

세계 문단에서 주목받는 참신하고 전위적인 미국 작가의 최신작만을 엄선했다. 미국 문학을 전공한 권위자로 번역진을 구성했으며, 모든 작품이 국내 초역이었다. 1979년 『점원』으로 시작된 이 시리즈는 『내 이름은 술라』를 쓴 토니 모리슨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그 진가가 널리 알려졌다. 풍자와 블랙 유머의 대가 커트 보니것의 대표작 『제5도살장』 역시 이 시리즈를 통해 소개되어 국내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 27 제2의 성 을유사상고전

시몬 드 보부아르 지음 | 이정순 옮김

『제2의 성』은 여성 해방의 선구자로 알려진 시몬 드 보부아르의 대표작으로, 국내에는 을유문화사에서 1973년에 처음 소개하였다. 그로부터 50여 년 만에 다시 을유문화사에서 프랑스 저작권사와 공식 계약하고 변화한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번역을 선보였다. 이번 번역은 프랑스 파리 4대학에서 보부아르의 철학 사상과 문학 작품 연구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보부아르 전문 연구자인 이정순 선생이 맡아 3년 넘게 공을 들였다.



## 28 황금가지 (전 2권) 을유사상고전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지음 | 박규태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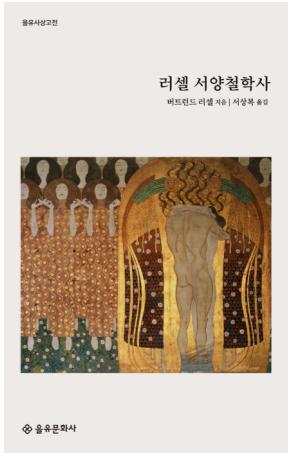
고전 인문학자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의 대작 『황금가지』 제3판 전 12권(1906~1915)을 1922년에 프레이저 경이 직접 요약한 맥밀런판을 원저로 삼아, 한양대 박규태 교수가 번역과 주석에 3년 넘게 공들인 작품이다. 프레이저 경은 원시 종교에 대한 일반적 논의보다 당시 누구도 던지지 않았던 물음, 즉 고대 이탈리아 네미 호수의 사제왕 살해 전설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세계 곳곳의 수많은 전설·신화·종교·터부의 사례를 끊임없이 풀어놓는다. 이를 통해 인류가 미개 상태로부터 종교의 시대, 과학의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을 파악하고, 현대의 종교적 관습이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것임을 밝힌다.



## 29 러셀 서양철학사 을유사상고전

버트런드 러셀 지음 | 서상복 옮김

20세기 대표 지성 버트런드 러셀의 명저 『러셀 서양철학사』는 고대 그리스철학에서 현대 분석철학까지 서양 철학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철학자의 주요 사상을 사회문화 및 정치적 배경과 연결하여 러셀의 관점에서 쓴 철학 고전이다. 기존의 철학 책과 달리 저자의 고유한 철학적 관점과 참신한 분석적 방법으로 수많은 철학자의 사상을 일관되게 해석하고 비판한다. 또한 철학이 사회문화나 정치적 환경과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는지 종교, 수학, 과학 같은 다른 분야와 연결하여 보여 준다.



## 30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을유사상고전

아르튀어 쇼펜하우어 지음 | 홍성광 옮김

을유문화사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2009년 첫 출간 이후 2015년 개정증보판을 거쳐 이번에 전면개정판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역작이다. 공식 출간 200주년을 맞아 '을유사상고전' 시리즈로 출간되는 이번 개정판을 위해 역사인 홍성광 박사는 기존의 명쾌한 해설을 한층 더 강화했다. 쇼펜하우어의 다사다난한 인생 여정, 그의 의지 철학과 불교 사상의 관계 등 책을 둘러싼 모든 설명을 대폭 보완했다. 또한 이번 개정판에는 쇼펜하우어와 그의 철학을 둘러싼 30여 점의 도판이 실려 독자의 이해를 돋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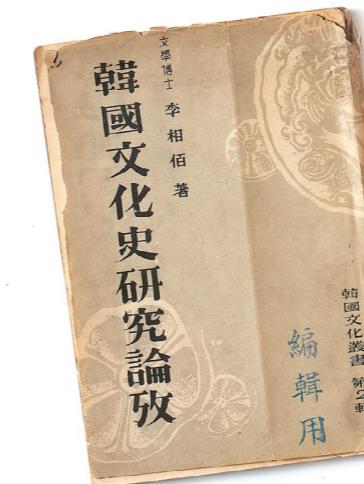
## 31 소학생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주간 잡지. 1946년 2월 11일 창간되어 1947년 4월까지 통권 45호를 내고, 5월 1일자로 발행된 46호부터는 월간으로 전환했다. 이 잡지는 코주부 김용환과 김의환 형제, 동요작가 권태웅, 동요와 동시에 유명한 김요섭의 작품이 게재되어 많은 인기를 끌었다. 최남선이 창간한 『소년』 이후 한국 소년 잡지의 명맥을 이어간 『소학생』은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79호를 끝으로 종간되었다.



## 32 조선문화총서

우리나라 고유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 천명하여 새로운 민족 문화 창조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해방 직후부터 국학계의 권위 있는 학자들을 총동원, 우리 문화 각 방면에 걸쳐 최고 수준의 학문적 연구를 선보인 '조선문화총서'는 한국 문화의 정수로 꼽힌다. 1947년 4월에 손진태의 『조선민족설화의 연구』를 시작으로 한국전쟁 때까지 총 12집을 발행했으며, 전후 '한국문화총서'로 이름을 바꾸어 발간을 계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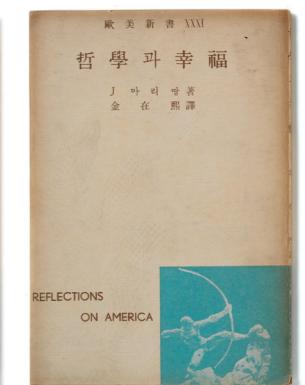
### 33 대학총서

1948년 당시 대학 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착안한 조풍연 편집국장이 사학자인 홍이섭 교수의 도움을 얻어 기획한 총서. 번역보다 국내의 독창적인 역할을 발굴하는 데 주안을 둔 이 총서는 1960년대 이후에도 계속 간행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양주동의 『국학연구논고』, 이승녕의 『중세국어문법』 등은 판을 바꾸어 가면서 쇄를 거듭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앤서니 기든스의 『현대사회학』, 오스틴 래니의 『현대정치학』 등이 뒤를 이었다.



### 34 구미신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석학, 사상가들을 통해 현대 서구 문화를 조망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총서로, 1952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해서 1964년까지 12년에 걸쳐 완성되었다. 종교, 철학, 교육, 정치, 경제, 과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새로운 문화, 학술 분야의 명저들을 국내에 처음으로 번역 소개한 시리즈로서 전쟁 중 새로운 지식에 끌주렸던 젊은 지성에게 서구 문화의 진수를 접할 수 있게 한 획기적인 출판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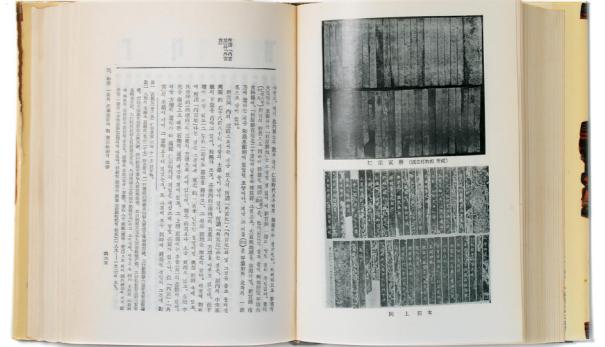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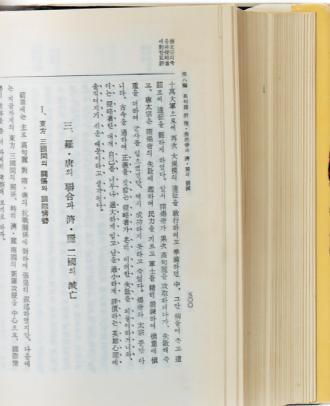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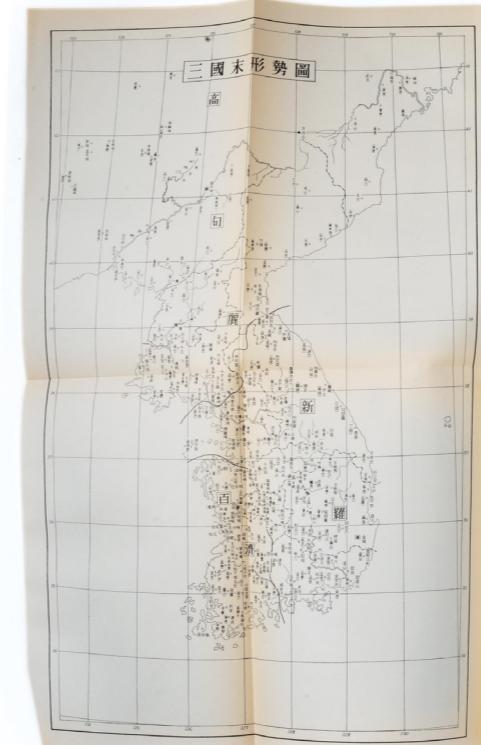
## 35 한국사

1959년 6월부터 1965년까지 진단학회의 주도로 간행된 한국사 개설서.

해방 이후 한국 학계의 연구 성과를 집성, 총괄 정리함으로써 방대한 역사의

체계를 확립시키고자 했다. 사계의 최고 권위자들이 심훈을 기울여 집필·편찬한  
획기적인 한국 전사로, 귀중한 민족 문화재로 꼽힌다. 해방이 되고 독립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통사 하나 없던 우리 학계는 이로써 일제의 식민사관을  
지양하고 우리의 역사를 자주적으로 말하게 되었으니, 우리 민족의 진정한 독립은  
이때부터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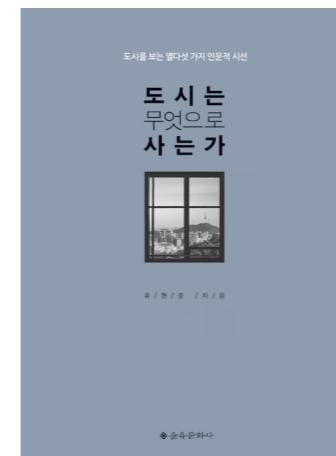




## 36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유현준 지음

도시는 단순히 건축물이나 공간을 모아 놓은 곳이 아니다. 도시는 인간의 삶이 반영되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는 것과 욕망이 드러난다. 이 책은 자신들이 만든 도시에 인간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과연 더 행복해지는지 아니면 꾀폐해지고 있는지 도시의 답변을 들려준다. 인문 건축가 유현준의 이름을 널리 알린 대표작이다.



## 37 공간이 만든 공간

유현준 지음

“새로운 시각을 선사하는 책은 좁은 틀에 갇혀 있지 않다. 이 책 또한 그러하다. 이 책은 건축이라는 프레임을 넘어 과학,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문화의 기원과 창조, 융합, 진화를 이야기한다. 저자 유현준의 통찰이 돋보이는 흥미로운 주제는 예리하고 설득력 있는 분석과 다양한 근거가 뒷받침되어 납득할 만한 논거를 제공한다. 새로운 것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故 이어령(초대 문화부 장관)



## 38 유현준의 인문 건축 기행

유현준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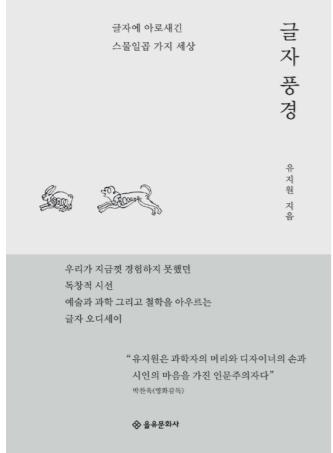
건축가 유현준이 감명받거나 영감을 얻은 30개의 건축물을 소개한다. 이 작품들을 설계한 건축가들은 수백 년 된 전통을 뒤집거나 비트는 혁명적인 생각으로 건축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저자는 이 건축물을 통해 건축 디자인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 건축물을 통해 독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보물 같은 작품들을 소개한다.



## 39 글자 풍경

유지원 지음

『글자 풍경』은 타이포그래피 연구자의 시선으로 낯설게, 인문적 시선으로 통찰력 있게 글자에 아로새겨진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풍경과 마주하는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저자 유지원은 타이포그래피 연구자이지만 예술, 과학, 철학 등 여러 분야를 총망라한 종합적 글쓰기를 시도함으로써 자기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과감히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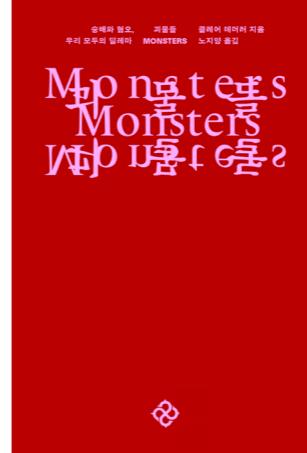


“유지원은 과학자의 머리와 디자이너의 손과 시인의 마음을 가진 인문주의자다.” —박찬욱(영화감독)  
“근사한 책은 일상적인 것들을 한순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 책이 그렇다. 마지막 책장을 덮고 나면, 이제 당신은 양식이 다른 글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로 당신에게 말을 거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정재승(과학자)

## 40 괴물들

클레어 데더리 지음 | 노지양 옮김

『괴물들』은 괴물과 그들의 창작물을 소비하는 관객의 딜레마적 상황에 정면으로 부딪쳐 보는 책이다. ‘작품과 창작자는 분리해야 하는가’는 해묵은 논쟁거리이지만 그동안 양쪽의 의견을 각각 들어보고 비교해 보는 시도는 많았던 반면, 한 작가가 직접 딜레마의 당사자가 되어 해당 주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간 결과물은 없었다는 점에서 반가운 성과라 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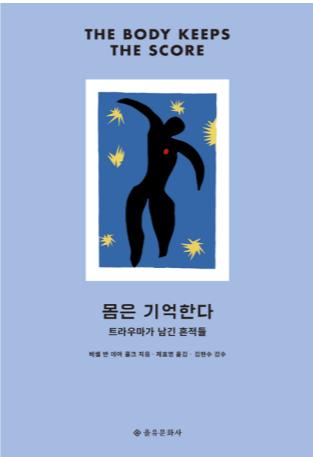
“세상은 젠더든 계급이든 하나의 모순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일반론, 보편성, 일관성으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이 이 책의 딜레마에 대처하는 맥락적 지식이다.”  
—정희진(여성학자)

“우리가 우리 안의 괴물성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타인의 괴물성과 마주해서도 그것을 어떻게든 다루어야 한다. 단순히 ‘취소’를 누르는 것만으로는 괴물도, 괴물에 대한 우리의 갈 곁 잊은 감정도 사라지지 않는다.” —한정원(시인)

## 41 몸은 기억한다

베셀 반 데어 콜크 지음 | 제효영 옮김

『몸은 기억한다』는 19세기부터 2014년까지 세계 정신의학과 심리학계의 트라우마 연구와 치료의 새 발견을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그 한계와 혁신을 드러내는 종합보고서이자, 1960년대 의과대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공부와 치료 이력을 시간을 거슬러오르며 진솔하게 기록한 정신과 의사의 초상이자, 그 길에서 만난 환자들의 고통과 삶의 이야기다. 치료자와 환자는 물론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 상처와 기억의 행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이 책이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한겨례』



## 42 가치 있는 삶

마리 루티 지음 | 이현경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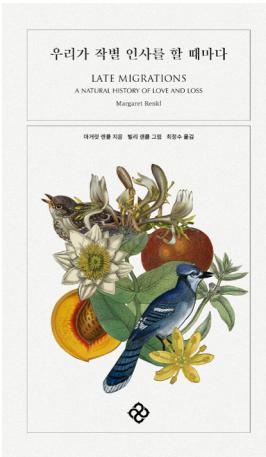
이 책의 저자 마리 루티는 자기 계발 전문가들은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질 때, 단순화된 수준의 지침을 내세울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한나 아렌트, 자크 라캉, 프리드리히 니체 등 철학자들의 이론을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 쓰는 방식을 택했다. 특히 자크 라캉의 사상을 빌려 가치 있는 삶에 관해 깊이 있는 관점을 전하고자 했다.



## 43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할 때마다

마거릿 렌을 지음 | 최정수 옮김

태어나는 삶도, 저물어 가는 삶도 모두 각각의 기적적인 순간들을 갖고 있다. 치열하게 먹고 먹히면서도 끗끗이 번성을 꾀하는 자연의 흥망성쇠는 이 책 속에서 하나로 이어진 흐름처럼 느껴지며, 거기서 탄생과 죽음은 공평하게 존중받는다. 자신의 온 삶과 이 세상을 허허로운 따뜻함으로 둘러싸는 이 책은 독자들에게 익숙하고 포근한 이불 같은 온기를 선사할 것이다.



## 44 연애편지

시몬 드 보부아르 지음 | 이정순 옮김

현대 여성학의 성서라 불리는 『제2의 성』이 출간되기 2년 전인 1947년에 보부아르는 장 폴 사르트르와 함께 미국 강연을 갔다가 그곳에서 미국 소설가 넬슨 올그レン을 만난다. 둘은 첫 만남에서 바로 호감을 느꼈고, 이후 1964년까지 17년간 대서양을 넘나드는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는다. 그리고 이 편지들이 세상에 공개되리라 예감한 그녀는 죽기 전에 이 책의 출판 작업을 직접 감독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녀에겐 시간이 많지 않았고, 결국 그녀 사후 11년 만인 1997년에 양녀 실비 봉 드 보부아르에 의해 그 모습이 알려진다.





## 45 을유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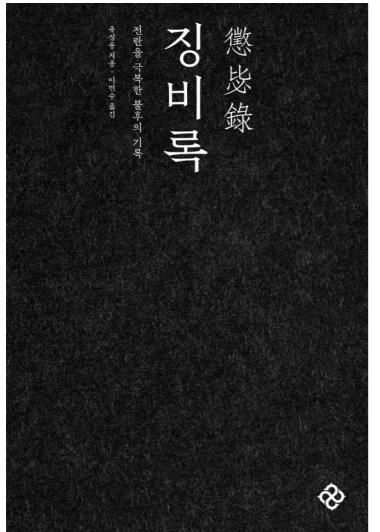
지식의 대중화와 양서의 대량 보급을 위해 동서양과 시대를 통틀어 수많은 분야를 총망라한 문고 시리즈다. 1948년 '문화와 사상의 범국민적 보편화'라는 취지에서 박태원의 『성탄제』를 시작으로 26권까지 내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969년 3월 문일평의 『한국의 문화』를 필두로 속간되어 1988년 268권까지 출간되었다. 초기에는 영미 문학과 기존 도서의 재출간하는 페이퍼백 성격이 짙었으나, 이후로는 국학과 중국 고전 문학 번역에 많은 힘을 쏟았다.



46 징비록

유성룡 지음 | 이민수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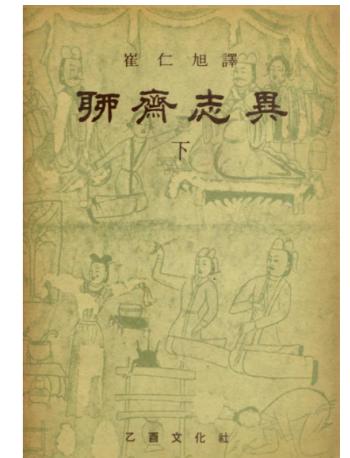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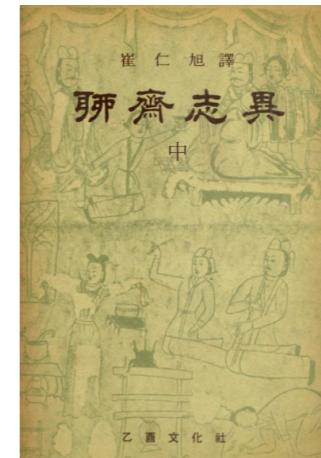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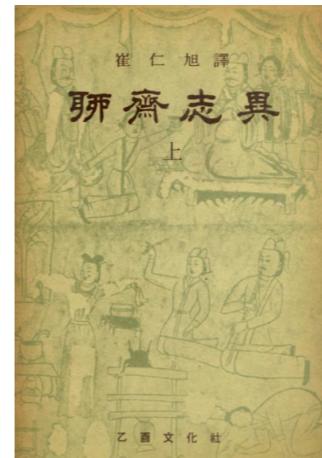
현재까지 전해지는 『징비록』은 초간본과 간행본으로 16권본, 2권본이 남아 있다. 그중에서 이 책은 가장 원천이 되는 초간본 『징비록』을 번역의 원전으로 삼았다. 다만 이 책의 서문은 초본에 해당 부분이 없어진 탓으로 간행본의 서문을 택했다. 또한 역자의 해제를 앞에 덧붙여 『징비록』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 책의 배경과 의의 등을 설명했다.



## 47 요재지이 (전 3권)

포송령 지음 | 최인욱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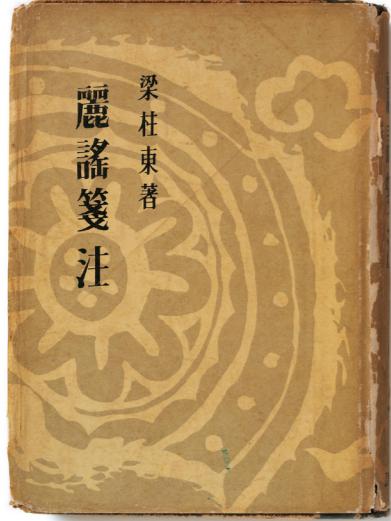
중국 문학사의 대작이자 8대 기서 중 하나인 『요재지이』는 500여 편의 이야기가 수록된 단편소설집으로, 전통적인 문어체인 고문으로 쓰인 책 중 최고의 경지에 오른 책으로 평가받는다. 1966년 소설가 최인숙의 번역으로 출간된 『요재지이』는 중국의 고전문학선에 대한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당시 '중국고전문학선'으로 소개된 『삼국지』, 『수호지』, 『금병매』, 『서유기』 등과 함께 큰 사랑을 받았다.



## 48 여요전주

양주동 지음

1947년 4월에 간행된 국문학자 양주동의『여요전주』는 민족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도서 간행에 기울인 을유의 노력을 여실히 증명한 역할을 했다. A5판 468쪽의 본격 학술서인 이 책은 을유가 펴낸 최초의 양장본으로서, 우리 고전문학의 '정리된 재료'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해낼 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월간『신동아』 1985년 1월호 별책부록으로 나온 「현대한국의 명저 100권」 가운데서『여요전주』는 당당하게 그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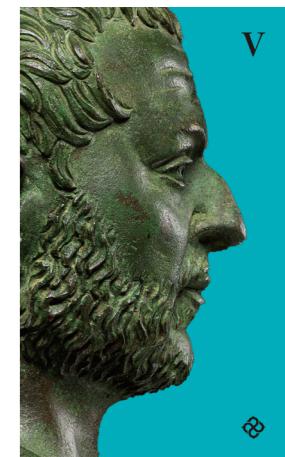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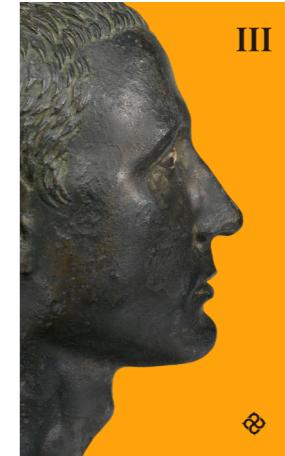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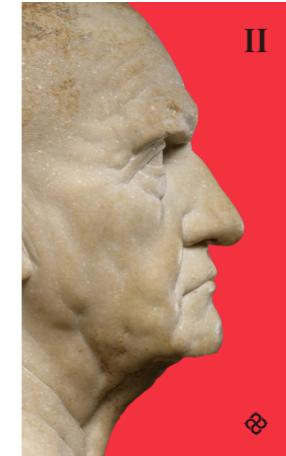


© 신옹재

## 49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전 5권)

플루타르코스 지음 | 신복룡 옮김

오랜 기간 번역에 몰두한 신복룡 교수와 50년 만에『영웅전』완역을 선보이는 을유문화사는 완성도 높은 판본을 선보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하버드대학 출판부에서 내놓은 페린 번역본을 바탕으로 빠뜨린 내용 없이 완역을 진행했다. 또한 원전에서 유실된 「한니발전」과 「스키피오전」 등 여러 내용을 후대의 작가들이 작성한 판본으로 추가해 놓았다. 플루타르코스의 원전에 못지 않은 깊이를 자랑하는 이 추가 작업들은 오직 을유문화사의 이번 판본에서만 만날 수 있는 내용이다. 완역을 넘어서 보다 완벽한 '영웅전'을 선사하고자 기획한 이 판본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영웅 열전을 더욱 풍성하게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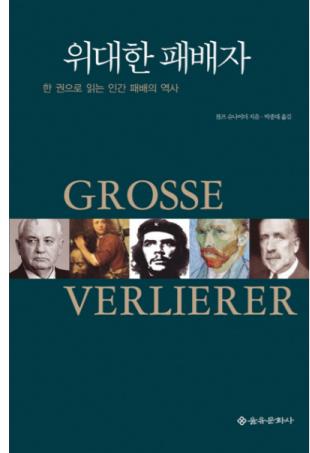
“나는 때로 창조주와 내 존재 자체를 저주했다. (그러나) 플루타르코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알려 주었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정수... 세계의 도서관이 불탄다면 나는 서둘러 셰익스피어와 플라톤, 그리고『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을 구해낼 것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

## 50 위대한 패배자

볼프 슈나이더 지음 | 박종대 옮김

이 책은 세계문학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비극적 주인공들을 비롯해서 25명이 넘는 좌초된 영웅들의 삶을 10가지 패배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다. 방대한 분야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깊이 있고 새로운 해석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과거의 인물뿐만 아니라 현대의 시사적 인물까지 쉽고 간결하게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문화, 정치,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인간 패배의 역사'를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조망할 수 있다.



## 51 지식인의 두 얼굴

풀 존슨 지음 | 윤철희 옮김

영국 현대사의 최전선에 위치한 저널리스트이자 역사학의 대가인 풀 존슨의 대표작. 이 책은 역사, 인문, 예술, 문화를 넘나들며 50여 권의 방대한 저작을 저술해 온 풀 존슨 특유의 예리한 통찰력과 백과사전적 지식, 현란한 문체로 지식인의 2백 년 역사를 종횡무진하며 파헤친 역작이다. '지식인의 탄생과 기원'을 살피며 시작하는 이 책은 근대적 지식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자신의 사상과 위배되는 도덕적 모순을 보여 왔는지 방대한 자료 조사를 통해 탐사한다.



## 52 서울과 교토의 1만년

정재정 지음

이 책에는 한일관계사의 권위자인 정재정 교수가 교토의 곳곳을 다니며 이러한 역사의 현장을 더듬은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일본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고 그곳 학자들과 교류하며 한일 관계사를 연구한 저자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사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 준다.



## 53 마이클 더다의 고전 읽기의 즐거움

마이클 더다 지음 | 이종인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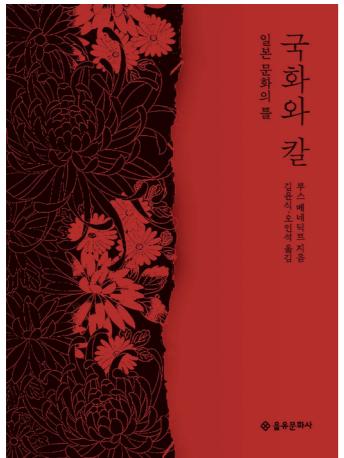
『워싱턴 포스트』의 언론인이자 평론가인 마이클 더다가 '지금 우리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고전' 100여 권을 오직 '즐거움'에 초점을 맞춰 소개하는 서양 고전 길잡이이다. 키케로에서 애거사 크리스티까지, 서양의 대표적인 작가 90여 명의 대표작들을 저자만의 독특한 관점에서 해설한다.



## 54 국화와 칼

루스 베네딕트 지음 | 김윤식, 오인석 옮김

『국화와 칼』은 루스 베네딕트가 미 국무성의 위촉으로 2년여 동안 일본 문화를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물로, 당시 일본과 전쟁 중이던 미국은 미국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본인의 행동을 연구하고자 했다.『국화와 칼』은 일본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들인 계층적 위계질서 의식, 수치와 죄책감의 문화, 은혜에 관한 개념 등을 최초로 명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차후의 일본 문화 분석에 아주 기본적인 준거가 되었다.



## 55 김현의 그리스 로마 신화

김현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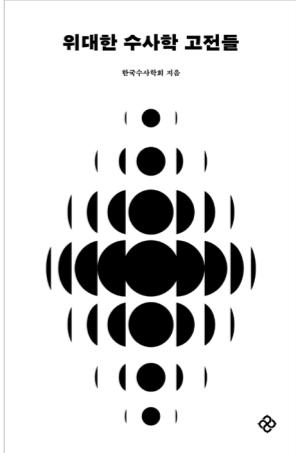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비롯한 고전을 연구하며 20여 년 가까이 이어온 저자의 그리스·로마 신화 강의는 서울대학교 도서관 대출 순위 상위권을 관련 서적으로 바꿔 놓을 정도로 정평이 나 있다.『김현의 그리스·로마 신화』는 이런 그의 강의를 집대성한 책으로, 천지 창조가 시작되는 카오스부터 올림푸스의 여러 신과 반신반인의 영웅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신화 전체를 한 권으로 개괄할 수 있다.



## 56 위대한 수사학 고전들

한국수사학회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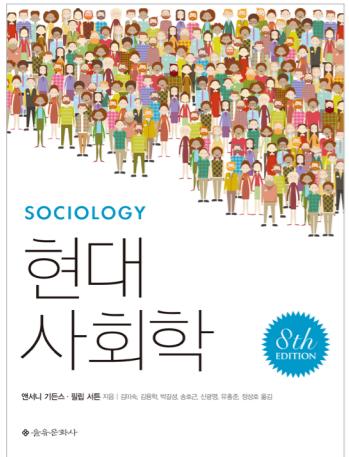
2023년에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한국수사학회의 첫 단행본으로, 수사학을 공부하는 학생뿐 아니라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꼭 읽어야 할 동서양의 수사학 고전을 한 권에 담았다. 서양과 동양에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사학을 만들어 낸 고전들을 20편 염선하여 다루었는데, 고전 각각에 대한 개별 연구는 진행된 적이 있지만 플라톤과 공자의 고대의 수사학부터 페렐만과 크나페의 현대 수사학까지 동서양의 수사학 고전을 한데 아우른 작업은 이 책이 처음이다.



## 57 현대사회학

앤서니 기든스 외 지음 | 김용학 외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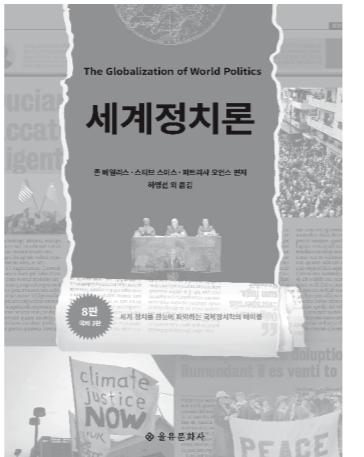
1989년 초판 출간 이후 30여 년간 시대 상황의 변화와 학문적 성장에 따라 새로운 내용을 꾸준히 소개하면서 사회학 개론서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한 『현대사회학』 여덟 번째 개정판이 나왔다. 세계적인 지성이자 사회학계의 권위자인 앤서니 기든스는 우리가 사회에서 경험한 수많은 변화와 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사회학자들의 여러 시도를 조망해 왔다.



## 58 세계정치론

존 베일리스 외 지음 | 하영선 외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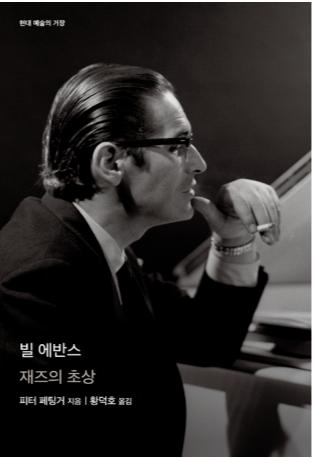
『세계정치론』은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국제정치학 개론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책은 초판이 출간된 이후 세계 정치의 역사 및 이론, 구조와 과정, 주요 쟁점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해당 분야의 바이블이자 표준 교과서로 자리 잡았으며,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반영하기 위해 꾸준히 개정되고 있다.



## 59 빌 에반스 현대 예술의 거장

피터 페팅거 지음 | 황덕호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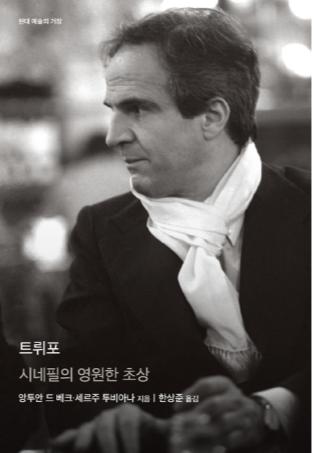
사색적이고 서정적인 미학의 세계를 보여 주며 오늘날 재즈사에 큰 영향을 끼친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의 예술 세계와 삶의 궤적을 섬세하게 담아낸 대표 전기다. 이 책의 저자 피터 페팅거는 빌 에반스의 음악에 매혹된 열성 팬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클래식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더 잘 포착할 수 있는 에반스 음악의 본질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우리를 그의 예술과 삶의 세계로 안내한다.



## 60 트뤼포 현대 예술의 거장

앙투안 드 베크, 세르주 투비아나 지음 | 한상준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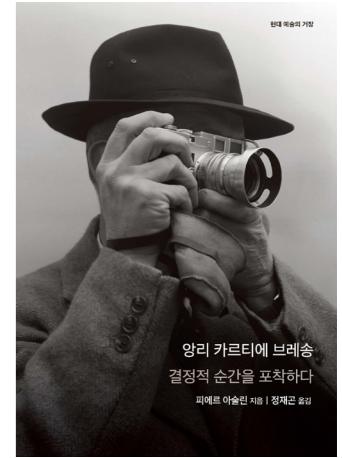
세계 영화사의 흐름을 바꾼 감독 트뤼포의 영화들과 영화 같은 삶을 조명한 평전이다. 트뤼포는 생전에 여러 차례 자서전을 기획했으나 집필은 끝내 실현하지 못했다. 이 책은 트뤼포가 가까운 친구이자 번역가였던 헬렌 스코트와 주고받은 서신을 비롯해 동료들의 수많은 증언과 트뤼포의 일기, 메모, 개인 문집 등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지금까지 트뤼포에 대해 알려진 사실 이외의 사실들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기록했다.



## 61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현대 예술의 거장

피에르 아슐린 지음 | 정재곤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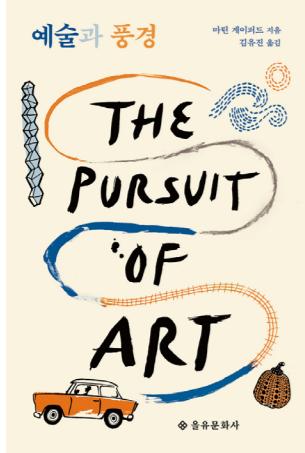
20세기 사진 예술을 선구한 '세기의 눈'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의 경이로운 생애와 사진 미학을 담은 대표 전기. 이 책은 프랑스의 저명한 평론가이자 전기 작가, 무엇보다 카르티에 브레송의 '친구'였던 저자 피에르 아슐린이 카메라 뒤에 감춰져 보이지 않던 대가의 진짜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그와의 대화를 통해 촘촘히 완성해 나간 저작이다. 생전 자기 사진이 찍히는 걸 극도로 싫어했고 미디어에의 노출도 최소화했던 이 예술가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그가 저자에게 사진을 포함해 자신의 아카이브를 모두 공개하고 내어 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 62 예술과 풍경

마틴 게이퍼드 지음 | 김유진 옮김

이 책의 저자 마틴 게이퍼드는 미술 비평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이번 기행서는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미술 작품들,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정 기간에 집약되거나 출간 직전에 이루어진 '최신' 미술 여행이 아닌, 25년간의 궤적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그만큼 책이 포괄하는 미술의 시공간적 범위는 넓다. 저자의 비평 활동의 하이라이트를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63 오디오 · 라이프 · 디자인

기디언 슈워츠 지음 | 이현준 옮김

『오디오 · 라이프 · 디자인』은 오디오와 디자인에 대한 훌륭한 레퍼런스가 되어 준다. 책에는 1950년대 루디 반 젤더의 스튜디오 사진을 시작으로, 오디오 산업의 유토피아를 이끈 1950년대부터 새로운 아날로그 혁명이 불고 있는 현재까지 다양한 오디오 브랜드의 앰프, 터너, 카트리지, 스피커, 턴테이블 등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사진 자료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다.



## 64 한국 팝의 고고학 (전 4권)

김학선, 신현준, 최지선 지음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세밀히 살핀 저작으로, 2005년 '1960', '1970'편 출간 당시 그 시대를 파고든 내실 있는 역작으로 평단과 대중에게 모두 인정받은 바 있다. 이 책의 절판을 아쉬워하던 독자들의 요구에 힘입어 개정판 출간이 기획되었고, 저자들은 여기에 더해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관찰하고 정리해 나갔다. 기존에 냈던 두 권을 수정, 보완했고 '1980'편과 '1990'편을 새로 만들어 시리즈를 네 권짜리로 업그레이드했다.





© 박찬욱

## 65 헤어질 결심 각본

박찬욱, 정서경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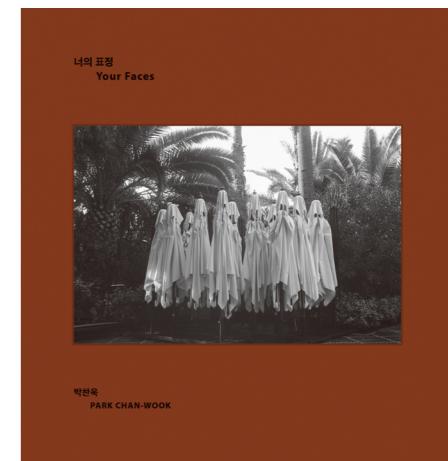
75회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 〈헤어질 결심〉 오지지널 각본.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서래의 한국어 대사는 활자로 읽었을 때도 특별한 매력을 풍기며, 해준의 대사 역시 단어 선정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천천히 풀어볼 수 있다. 게다가 중국어 대사에는 원문이 함께 실려 있어 그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다.



## 66 너의 표정

박찬욱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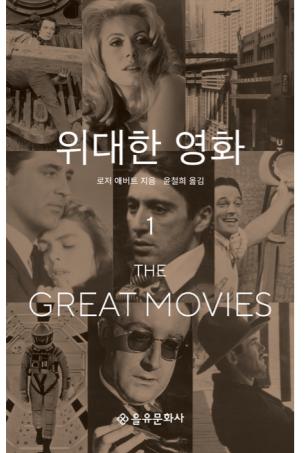
“아마 박찬욱의 영화에 대해서는 하기 힘든 말. 『너의 표정』의 사진들은 대부분 다정하다. 아름답고자 하지 않은 것들의 예쁨. 귀하지 않은 것들의 특별함을 찾고 있기에 한없이 다정하다. 그의 사진은 낡고 허접한 것, 상하고 벼려진 것에서 질서를 기어코 찾아내 우리의 미감과 세상에 드리워진 막을 걷어낸다.” —김혜리(『씨네21』편집위원)



## 67 위대한 영화 (전 4권)

로저 에버트 지음 | 윤철희 옮김

풀리처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영화 평론가 로저 에버트가 생의 마지막까지 써 내려간 우리 시대의 대표작. 〈전함 포템킨〉부터 〈대부〉, 〈사이코〉를 지나 최신작까지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362편의 감동적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첫 번째 책이 나온 2002년에 이어 2005년과 2010년, 그리고 로저 에버트가 숨진 후인 2016년까지 후속작이 하나씩 추가되면서 ‘위대한 영화’는 로저 에버트를 가리키는 하나의 이름이 되었다. 1권부터 4권까지 실린 총 362편의 글은 20세기 영화사를 돌아보는 현미경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 68 인간과 사진

제프 데이어 지음 | 김유진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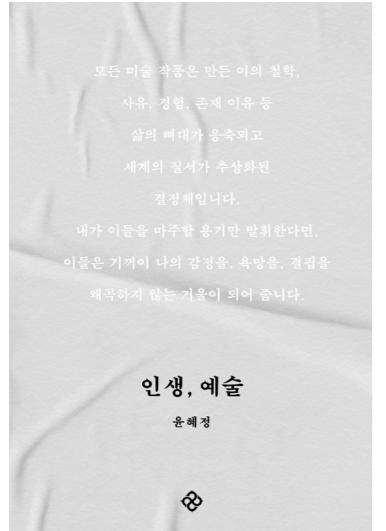
21세기 사진 비평의 최전선 제프 데이어의 대표작. 1부는 데이어가 여러 매체에 기고한 칼럼 가운데 사진가에 관한 이야기를 모았으며, 2부는 한 장의 사진이 그 시대를 어떤 식으로 담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그리고 3부는 사진에 관한 책들을 대상으로 한 ‘북 리뷰’다. 외젠 아제와 아우구스트 잔더 같은 옛 거장들부터 구글 어스로 찍힌 장면을 캡쳐한 ‘사진가’ 마이클 울프까지, 데이어는 매번 몇 장의 사진을 펼치고는 그 이미지들이 자신에게 불러일으킨 감흥을 자유롭게 풀어낸다.



## 69 인생, 예술

윤혜정 지음

문화 예술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윤혜정의 개인적인 고백록이다. 이 책에는 28명의 현대 예술가와 그 대표작들에 대한 저자의 주관적인 감상과 인생에 대한 사유가 “감정, 관계, 일, 여성, 일상”이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각각의 이야기에는 예술에 대한 최신 정보뿐 아니라 예술가들과의 특별한 일화, 그리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혜매고 싸우고 좌절하고, 가끔은 환희에 찬 저자의 인생이 함께 녹아 있다.



## 70 위대한 여성 예술가들

파이든 편집부 외 지음

이 책은 억압과 차별의 시간 속에 파묻힌 수많은 여성 예술가들의 위대한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함으로써, 그동안 세계 미술사가 잊어버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로써 1490년생부터 1990년생까지 500년 동안 5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각자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서 여성 예술가로 살기 위해 애쓴 400여 명의 삶과 그로써 탄생한 걸작 400여 점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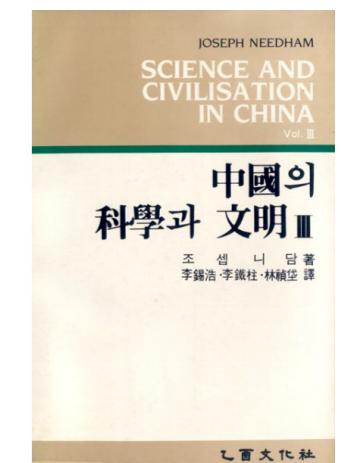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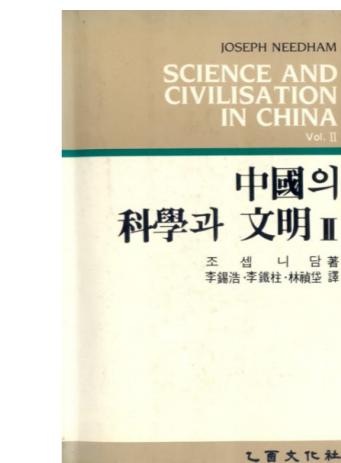




## 7I 중국의 과학과 문명 (전 3권)

조지프 니덤 지음 | 이석호 외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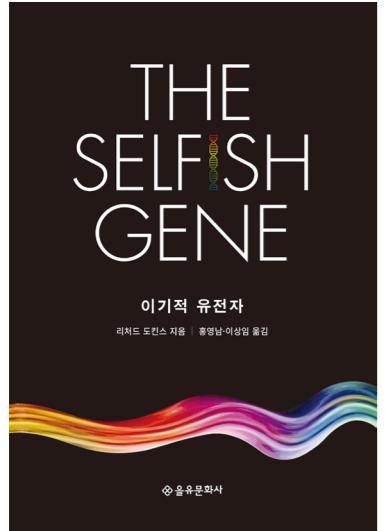
1985년 출간된 조지프 니덤의『중국의 과학과 문명』은 그 내용의 깊이로나 양의 방대함으로나 이 분야의 금세기 최고의 저서로 평가받는 책으로, 1986년 제4회 한국과학기술도서상을 수상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 세계적인 명저의 번역 출간을 계기로 우리 학계에서는 중국의 과학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다만 원서가 25권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던 만큼 번역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3권을 끝으로 어렵게도 미완의 작업으로 남겨 두게 되었다.



## 72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지음 | 흥영남, 이상임 옮김

도킨스는 이 책에서 “인간은 유전자의 꼭두각시”라고 선언한다. 인간이 “유전자에 미리 프로그램된 대로 먹고 살고 사랑하면서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생물학계를 비롯해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이 책은 40년 동안 이어진 학계와 언론의 수많은 찬사와 논쟁 속에 2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젊은이들이 꼭 읽어야 할 과학계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내게는 『이기적 유전자』가 바로 그런 책이다. 삶에 대한 회의로 밤을 지새우는  
젊음에게, 그리고 평생 삶에 대한 회의를 품고 살면서도 이렇다 할 답을 얻지  
못한 지성에게 『이기적 유전자』를 권한다. 일단 불들면 밤을 지새울 것이다.”  
—최재천(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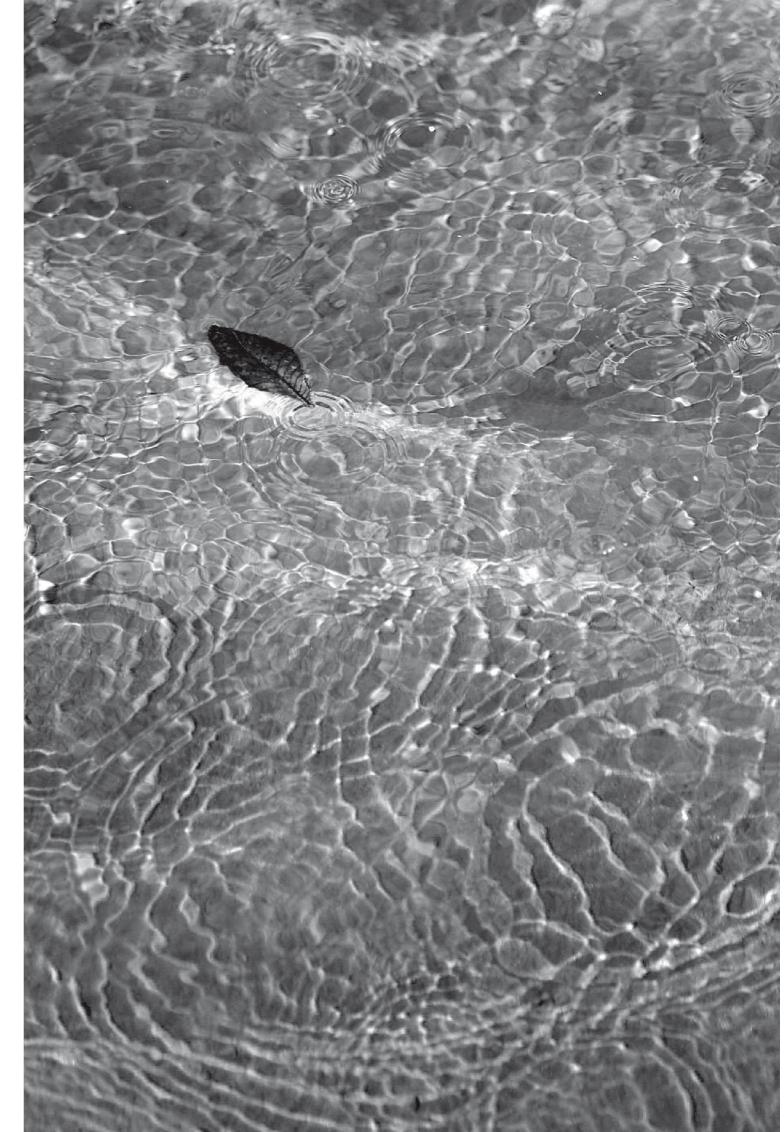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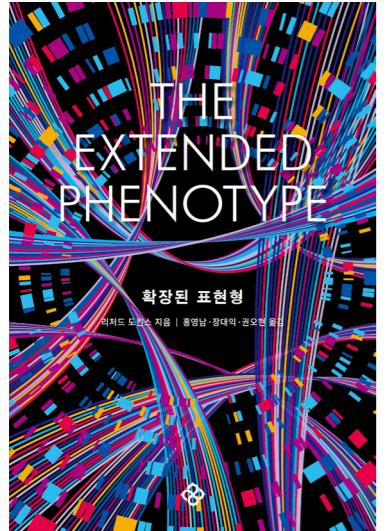
“독자를 천재처럼 느끼게 만드는 대중 과학서다.” —『뉴욕 타임스』

“이 책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읽혀야 하며, 또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  
진화론의 새로운 국면이 매우 솜씨 좋게 기술되어 있다.” —『사이언스 저널』

## 73 확장된 표현형

리처드 도킨스 지음 | 흥영남, 장대익, 권오현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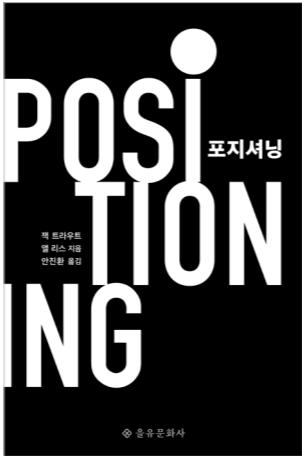
『이기적 유전자』가 세상에 혁명적 시각을 던졌다면,『확장된 표현형』은 저자의 관점에 깊이를 더하고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바를 명쾌하게 보여 주는 완성작이라 할 수 있다. 도킨스는 자신의 최고 작품으로『확장된 표현형』을 꼽은 바 있다. 그는『이기적 유전자』의「유전자의 긴 팔」이란 장에서 “실은 지금 당장 이 책을 접고『확장된 표현형』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학문적 자부심과 애착을 드러낸 바 있다.



## 74 포지셔닝

잭 트라우트, 앤 리스 지음 | 안진환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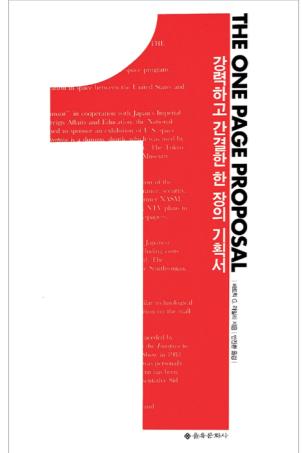
포지셔닝은 '정보 과잉 시대에 어떠한 상품 판매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맞물려 현대에 더욱 중요해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잭 트라우트와 앤 리스라는 두 명의 마케팅 전략가다. 이들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치밀한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포지셔닝의 개념을 정리했다. 이후 나날이 정보량이 폭증하고 커뮤니케이션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포지셔닝』은 모든 현대인을 위한 필독서로 자리매김했다.



## 75 THE ONE PAGE PROPOSAL

팻트릭 G. 라일리 지음 | 안진환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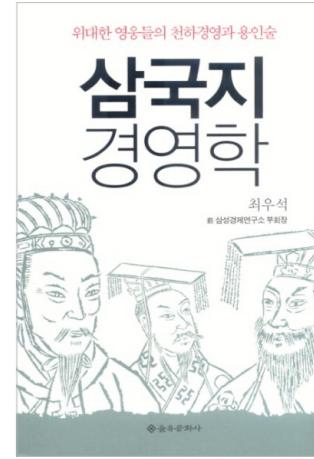
시대착오적인 오류로 사장되어 가는 빛나는 아이디어들을 구해 내는 강력하고 간결한 한 장의 기획서. 전통적인 기획서의 장황한 형식을 버리고, 한 장 안에 완벽한 내용을 담아 내는 새로운 형식의 기획서를 제안한다. 기업의 경영자이든, 시·도의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이든, 혹은 작은 사업부서의 일개 팀원이든 관계없이 핵심을 담은 한 장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 76 삼국지 경영학

최우석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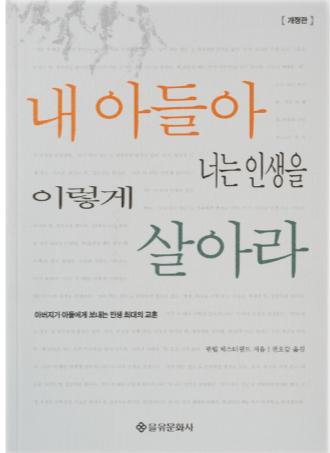
개인 처세에서 국가 전략까지 인간사의 크고 작은 일들을 두루 이야기하는 삼국지, 그 속에 리더가 알아야 할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 前 삼성경제연구소 부회장 최우석이 3년간 포브스 코리아에 연재한 〈삼국지 경영학〉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후한(後漢) 말, 수많은 영웅들이 뜨고 지는 치열한 투쟁 속에서 조조·유비·손권 세 영웅이 나라를 건설하고 키워낼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이 책은 삼국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인재를 기용하고, 추진력을 이끌어냈으며, 승부수를 띄웠는지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 77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필립 체스터필드 지음 | 권오감 옮김

대학에 진학한, 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녀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부모는 무엇을 가르치면 좋은가? 이 책은 영국의 정치가이자 문필가인 필립 체스터필드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1774)를 옮긴 것이다. 예컨대 사회 생활에서 필요한 에티켓, 인간 관계의 비결, 독서와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친구 사귀는 법 등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자상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 내용은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초월하여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충고의 말로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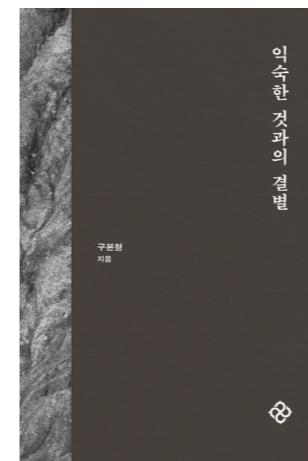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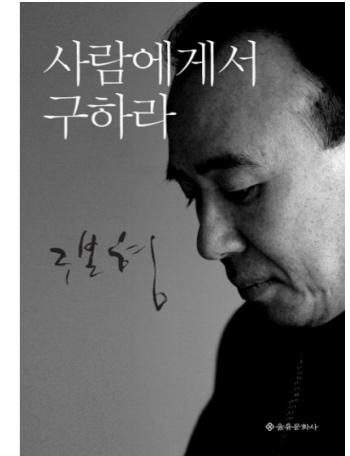




## 78 사람에게서 구하라

구본형 지음

우리 시대의 변화경영전문가 구본형이, 중국의 고사에서 추출해 낸 경영론에 현대 경영의 업적을 쓴 인물의 경영철학을 접목함으로써, 21세기의 한국형 인재경영론을 풀어 나간다. 총 5개 장, 25개 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에서 저자는 50여 개의 중국 고사를 들고 있다. 각 절에서는 대체로 사마천의 『사기열전』을 위주로 한 춘추전국시대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 이러한 에피소드가 담고 있는 경영적 교훈을 제시하고, 이어 현대 경영의 사례를 소개하며 다시금 이들을 종합함으로써 한국형 경영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 79 익숙한 것과의 결별

구본형 지음

이 책은 초판 출간 당시 변화를 원하는 많은 이의 공감을 사며 베스트셀러가 됐고, 쇄를 거듭하며 현재까지도 꾸준히 읽히는 고전이 되었다. 이는 삶의 근간이 되는 내용이 책에 담겨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에 의미 있는 해에 선생을 기리는 동시에, 독자들에게 선물로 다가가고자 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지혜와 사상가로서의 인문적 통찰이 담긴 내용을 최대한 살렸고, 선생의 오랜 제자인 문묘한 작가의 글 '왜 여전히 구본형인가?'를 새로 실었다.

## 80 윤광준의 생활명품 101

윤광준 지음

포스트코로나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새로운 가치관이 등장하면서 소비  
지향이 급변했다. 이에 윤광준은 그동안 소개한 물건 중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와 쓸모 그리고 아름다움을 지닌 것들을 추려 내고, 여기에 달라지는 시대에  
맞춰 필요해진 것들을 더해 우리 삶을 윤택하고 우아하게 만드는 물건 101가지를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선보인다. 이른바 '윤광준의 생활명품' 시리즈의 완결판이다.

